

## 생태적 공존을 향한 ‘번역’\*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을 중심으로

백우인 \*\*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3. 행위자와 번역
4.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의  
‘생태적 공존’을 향한 ‘번역’
5. 결론

---

\* 이 논문은 2023년에 ‘관계의 인문학:소통·공존·공감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마련된 제 7회 세계 인문학 포럼에서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 나타나는 ‘그로 테스크’에 관한 고찰-미하일 바흐친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 인하대학교 인문융합치료학 박사과정.

[국문초록]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은 비인간-동물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 기술과학의 발전에 대해 포스트 휴먼 사유로 이끈다. 이 연구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을 ‘그로테스크 리얼리즘’과 ‘의인관’, ‘생물학적 진화론’ 등의 행위자로 ‘번역’하여 ‘생태적 공존의 행위자 연결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브뤼노 라투르의 ‘번역’은 여러 가지의 행위소(행위자)를 구부리고 회유하여 동맹군을 만들어서 권력으로 등장시키고, 하나의 진리와 사실을 구성해내는 과정이자 방법이다. ANT 기반의 영화분석은 인지 인문학의 한 양식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즉, 학제 간 융합적 분석모형으로 기술과학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비인간-동물의 도구화 문제에 대해 다층적으로 숙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 비인간-동물과 인간의 존재론적 동등함을 알리며 생태적 공존을 실천하는 상상력을 제안하는 데 유용하다.

**주제어** : 번역, ANT, 행위자, 생태적 공존, 비인간-동물, 기술과학, 학제 간 융합, 인지 인문학

생태적 공존을 향한 ‘번역’-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을 중심으로 201

## 1. 들어가는 말

기술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할수록 기술과학의 실험대상인 비인간-동물의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이용된 실험동물 수는 499만 5680마리에 달한다. 이 수치는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이 숫자의 3분의 1 이상은 마취제 없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실험(고통 E등급)으로 희생됐다.<sup>1)</sup> 2024년에는 일론 머스크가 대표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개발업체 뉴럴링크(Neuralink)의 칩을 뇌에 이식한 환자가 생각만으로 화면상의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sup>2)</sup> 이 성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숭이를 비롯한 다수의 동물이 실험동물로 희생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sup>3)</sup> 이러한 실정에서 2023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Guardians of the Galaxy vol. 3)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간중심주의의 기술과학이 희생시키고 있는 비인간-동물을 사유하게끔 한다. 이 영화는 ‘기술과학의 발전’과 ‘비인간-동물’의 ‘생명윤리’에 대한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사진1. 두려워하는 로켓과 완벽한 생명체를 위해 실험당하고 있는 로켓>

본고는 <사진1>에 보이듯이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 나타나는 기술과학의 발전을 향한 인간의 욕망, 비인간-동물을 기계로 생각하고 생명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는 기술과학, 그 과학기술이 도구로

1) <https://kaap.or.kr/>

2) <https://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1129170.html>

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2414#home>

삼고 있는 비인간-동물에 집중한다. 특히 비인간-동물에 대한 생명윤리에 중점을 두고 이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태적 공존’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론적 평평함을 주장하는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ANT: actor-network-theory)’<sup>4)</sup>과 그 이론의 중요 개념인 번역(translation)의 방법을 사용한다. ‘ANT’와 ‘번역’은 영화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문학적 요소들과 비인간-동물과 기술과학의 연결에 대한 자연 과학적 분석을 결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비인간-동물’-‘그로테스크 리얼리즘’-‘생물학적 진화론’-‘의인관’ 등의 동맹을 구축한다면 문제시하는 사안에 대한 해결적 대안으로 ‘생태적 공존’ 개념이 강력하게 힘을 얻을 수 있다. ‘번역’의 방법으로 구안된 ANT 기반 영화 분석모형은 인지 인문학 측면에서 학제간 융합연구의 한 예시가 될 수 있다. 번역 과정에 등장하는 생태적 공존의 다중 학문적 제시는 비인간-동물과 더불어 인간이 왜 생태적 공존 윤리를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실천적 방법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 2.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Guardians of the Galaxy; 이하 가오

4) 브뤼노 라투르외, 홍성욱 역, 『인간·사물·동맹』, 2010, 이음, 17-34면. ANT는 1980년대 중반에 프랑스의 Bruno Latour, Michel Callon, 영국의 John Law 등이 기호학을 응용한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의 독특한 모델과 방법론을 정립하면서 시작되었다. 과학과 기술을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고 과학과 기술과 사회의 관계 안에서 사실(세계)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즉, 라투르는 기술을 포함하여 인공물과 동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비인간도 인간과 동등하고 대칭적인 관계에서 사실(진리, 권력)을 구성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사실(진리, 권력)은 인간과 비인간들의 연결망에서 등장하는데, 이 연결망의 구축과정을 이론화하여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 하였고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번역’은 신호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왜곡하기도 하는 특정 종류의 매개를 묘사하기 위해 미셸 세르가 사용한 개념을 라투르가 차용했다.

갤로 약칭한다)는 마블 코믹스의 슈퍼히어로 그룹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주인공으로 한 3부작 영화 시리즈다. 제임스 건이 감독했고 2014년에 vol. 1, 2017년에 vol. 2가 개봉된 이후 2023년에 vol. 3이 개봉되었다. <가오갤>은 그로테스크 리얼리즘(Grotesque Realism)<sup>5)</sup>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를테면 스페이스 오페라(Space Oper)<sup>6)</sup> 특유의 우주 배경에 인간부터 외계인, 나무, 너구리까지 다양한 종의 생명체들이 다양한 캐릭터로 공존한다. <가오갤>의 가디언즈 들은 행성의 수호자라는 이미지와 달리 구성원들의 팀워크가 서로 맞지 않아서 오합지졸처럼 어설피다.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삐걱거리고 티격태격한다. 그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유머러스하다. 기괴하게 부풀리고 과장하여 어설피고 부족해 보이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와 몸짓의 캐릭터들은 바로 그 과장된 이미지와 유쾌함과 특유의 유머로 지배자가 되려는 악당의 힘과 논리와 질서에 맞서 싸우고, 그들을 전복시킨다. 그들은 어느 한 존재의 뛰어난 능력에 기대기보다 팀의 연대로 위력을 보여준다.

<가오갤 3>의 시놉시스는 가디언즈의 본부가 있는 노웨어에서 갑작스런 공격을 받고 생명이 위협해진 로켓을 구하기 위해 동료들이 힘을 모아 위험한 미션에 나선다. 오합지졸 조합의 동료들이 우정과 연대의 힘으로 친구인 로켓을 구한다. 개봉 전 내한 간담회에서 감독 제임스 건은, <가오갤 3>의 주된 내용이 로켓의 기원을 보여주는 이야기며 감독 자신을 투영한 것이라 했다.<sup>7)</sup> 덧붙여 로켓은 분노에 가득 찬 작은 존재로,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소통이 어려운 아웃사이

---

5) 최진석,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 정치학 - 미하일 바흐친과 생성의 사유』, 그린비, 2017, 345-356면.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은 바흐친이 프랑수아 라블레의 문학을 분석하면서 사용한 용어다. 바흐친은 ‘카니발적인’ 것의 역동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라블레의 문학 양식을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고 칭한다.

6) 위키백과에서 스페이스 오페라 (Space Oper)는 가깝거나 먼 미래를 배경으로 우주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모험을 주요 소재로 한 SF 문학의 하위 장르라고 설명한다.

7) <https://blog.naver.com/pooh0512/223089316992>, <http://withinnews.co.kr/news/view.html?section=169&category=173&no=30381>

더 캐릭터로 소개하였다. 영화의 줄거리와 감독의 말에 근거해서 본 로켓이라는 캐릭터는 ‘과거의 서사가 있는 존재’-‘분노에 찬 존재’-‘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소통이 어려운 존재’-‘아웃사이다’-‘리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평론가인 이동진은 <가오깬 3>이 어린 것들에 대한 연민을 감동적으로 다룬 영화라고 평하면서 제임스 건이 희생당하는 실험동물에 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추론한다.<sup>8)</sup>

<가오깬 3>은 로켓 캐릭터 성격에 대해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답하듯 로켓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 예로 영화는 다가오는 손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눈빛의 로켓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된다. 이 객체(object)<sup>9)</sup>의 얼굴은 누구일까? 어떤 손이 객체를 두렵게 하는가? 누가 손을 내미는가? 그리고 왜 손을 내미는가? 등 <가오깬 3>은 이 객체에 관한, 객체를 위한 객체의 이야기다. 로켓의 기원에는 완벽한 생명체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동물실험 대상이 되었던 어린 로켓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다. 그 과거에서 실험대상이었던 친구들의 죽음을 경험했고 실험을 당하다가 인간처럼 말을 하게 되었다.

### 3. 행위자와 번역

브뤼노 라투르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연결망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하나의 힘이나 권력을 등장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 요소들을 행위자라고 칭한다. 이 용어는 그레마스(Greimas)의 기호학에서 행위소(actant)의 개념을 가져와 라투르의 용어로 개념화했다. 기호학에서 행위소는 내러티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 라투르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소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인간과 비인간이 모두 행위능력(agency)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인간과 비인간을 행위자(actor)로 명명한다.

8)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51005>

9) 여기서 사용한 객체는 어떤 주체 앞에서 대립하는 항으로 있는 객체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객체를 부각하는 객체지향철학의 개념이다.

번역은 언어적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와 결합해서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한 행위자가 이미 다른 연결망을 유지하던 행위자를 그 연결 네트워크에서 끊어내 자신의 네트워크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하여 연결망을 보다 더 강화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한마디로 ANT는 연결망 자체이면서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으로서의 번역인 셈이다.

번역은 4단계<sup>10)</sup>로 이루어진다. 1. ‘문제 제기’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방법을 제안하는 단계다. 이때 문제 제기를 하고 방법을 제안하는 그 행위자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자신으로 하자고 자원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의견이나 행위소는 기준인 행위자를 거쳐야 한다. 이 기준이 되는 행위자를 의무통과지점(필수 통과지점)이라고 하고 이 필수통과지점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을 맺는 기준이자 중심이 된다. 이 기준이 된 행위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2. ‘관심 끌기의 장치’는 어떻게 동맹들을 적당한 자리에 고정할 것인가의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이미 다른 연결망에 속해 있는 다른 행위자를 원하는 자리, 즉 ‘사이에 끼워 넣기’를 한다. 이렇게 구축하고 싶은 연결망 안으로 끌어들이며 동맹을 맺는다. 이때 필수통과지점은 다른 행위자들의 속성을 공고하게 하고 구부리거나 변형시켜서 자신의 연결망에 맞게 규정하려 한다. 3. ‘등록하기’ 단계는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조정할 것인가의 단계다. 내 연결망으로 포섭하려는 행위자에게 적당한 역할을 부여해서 연결망의 ‘안정화’를 시도한다. 이 단계에서 행위자들이 부여받은 역할을 받아들이고 연결망이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비로소 제대로 된 동맹이 구축된다. 4. ‘동맹군 동원하기’ 단계는 소수 행위자가 다수 행위자를 대변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소수 행위자가 연결망에서 대표가 되는 ‘권력’을 얻으면 그 소수 행위자는 전체집단을 대신하여 판단한다. 안정적으로 연결망이 구축되고 대표자가 생기면 연결망에 연결된 모든 행위자는 다른 연결망으로

---

10) 앞의 책, 59-94면.

홀어질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대변자가 다른 행위자들을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동원할 수 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번역의 4 단계에 맞추어 <가오깬 3>을 ‘생태적 공존’으로 번역한다.

#### 4. <가오깬 3>의 ‘생태적 공존’을 향한 ‘번역’

##### 4.1 문제 제기: 생태적 공존은 어떻게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는가?

본고에서는 <가오깬 3>에 나타난 비인간-동물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완전한 생명체를 만들어 완벽한 질서가 있는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하이 에블루셔너리의 욕망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비인간-동물을 문제 삼는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태적 공존’을 제안한다. ‘생태적(ecological)’이란 생명체를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들의 상호 작용으로 보는 관점이다.<sup>11)</sup> 생태적 공존은 자연환경에서 서로 다른 종들이 서로 유기적 연결망 안에서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문제 제기 단계에서 생태적 공존은 필수통과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하일 바흐찐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생물학적 진화론, 의인관 등을 ‘생태적 공존’의 네트워크로 동원할 행위자로 설정한다. ‘생태적 공존’이라는 개념은 <가오깬 3>을 생태적 공존으로 번역하는 행위자이고 다른 행위자들을 구부리고 조작하여 생태적 공존의 의미를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수통과지점이다.

##### 4.2. 관심 끌기 (동맹 맺기): 어떻게 동맹들을 적당한 자리에 고정할 것인가?

이 단계에서는 이미 다른 연결망 속에 있는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생물학적 진화론, 의인관을 그 연결망에서 끊어내 ‘생태적 공존’의 행위

11) 필립 클레이튼·앤드류 슈워츠, 이동우 역, 『미래는 생태 문명』, 산현재, 2023, 48-49면.

생태적 공존을 향한 ‘번역’-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을 중심으로 207

자로 끌어들이고 그 밖의 웃음, 이름, 손, 아픔, 감정, 공간도 행위자로 연결하여 ‘생태적 공존’연결망의 동맹 맺기를 시도한다.

### (1)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으로 번역하기

<사진2. 왼쪽: 가디언즈들, 오른쪽:빌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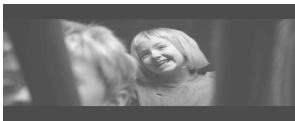
<가오갤 3>의 가디언즈 캐릭터(사진2의 왼쪽)는 퀘일(Quill) 라쿤(Rocket Raccoon), 푸른 피부와 가지로 된 그루트(Groot), 전투 기술을 지닌 바보스러운 거구의 드렉스(Drax), 그리고 감정을 읽고 교감하는 멘티스(Mantis), 자매인 네블라(Nebula)와 가모라(Gamora)다. 우주를 배경으로 인간, 외계인, 사이보그, 말하는 라쿤, 움직이는 나무가 한 팀을 이루는 것을 보면 오합지졸처럼 보인다. 종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들의 우정과 연대의 힘으로 친구인 라쿤을 구한다. 라쿤을 구할 뿐 아니라 학대받고 죽을 위협에 놓여 있던 비인간 동물인 라쿤이 동료들의 리더가 된다.

하이 에볼루션(사진 2의 오른쪽 빌런)은 기술과학을 이용하여 더 탁월한 존재자가 되기를 희망하며 완전하지 못한 것들을 혐오한다. 하이 에볼루션은 완벽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고도로 개선된 ‘완벽한’ 생명체를 만들고 ‘완벽한’ 질서가 있는 우주를 만드는 창조자일 뿐 아니라 지배자가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어느 날 그는 실험동물인 라쿤이 개조실험 결과 창조자를 뛰어넘는 지성을 갖추게 된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것을 라쿤이 바로 알아내는 것을 보고 열등감에 빠진다. 영화 마지막에서 그의 욕망은 파국을 맞고 실험 노동자로 희생당하던 동물과 어린아이들은 구출된다.

<가오갤 3>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는 기괴하고 과장되어 보이며 간

혹 대사들이 진지하되 유치한 면도 있다. <가오깬 3>은 장르와 주제, 등장인물 등을 고려해 보면 그로테스크 리얼리즘과 만난다.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험적 성격과 등장인물의 특징들은 그로테스크의 형식인 카니발<sup>12)</sup>과 닮아있다. 미하일 바흐친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은 기존의 가치체계를 부정하고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기제를 가지고 배제되고 소외된 것들이 중심에 서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낸다.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은 현실의 가치체계와 위계질서를 풍자하고 비웃고 전복시키며 해체하는 기능이 있다. 상부와 하부를 뒤집고, 고착된 질서와 구조에 균열을 낸다. 과학 제국이 된 오늘날 생명을 기계로 바라보는 과학주의와 존재의 사슬이라는 위계 구조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려는 욕망은 상부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유전체 실험대상인 비인간-동물은 마치 중세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위계 구조 안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는 분노한 민중과 포개지며 하부구조라 할 수 있다. 영화에서 비인간-동물의 승리와 비인간-동물이 가디언즈의 리더가 되는 것은 완벽한 역전이다. 상부와 하부가 뒤바뀌었고, 사회의 가치 질서가 전복되었다. 비인간 라쿤의 지적인 능력은 인간만이 우월하고 지적인 존재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처럼 읽힌다.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상시하며 당연하게 여기던 제도와 규범이 통쾌하게 조롱당한다.



<사진 3. 아이들의 웃음과 영화 마지막 장면의 웃고 춤추는 장면>

<가오깬 3>에 나타난 공존의 요소 중 웃음은 그로테스크 미학에서 중요한 요소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

12) 미하일 바흐친, 이덕형·최건영 역, 『프랑스어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1, 401면, 602면.

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웃음은 인간과 비인간을 두렵게 하는 죽음과 권력자 앞에서의 공포를 희화하고 풍자하여 공포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고 유쾌한 것으로 만든다. 아이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울 때, 드렉스는 특정 모습을 흉내 내면서 아이들의 두려움을 웃음으로 바꾼다(사진 3의 왼쪽). 드렉스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이 유발한 아이들의 웃음은 공포를 이기고 안전을 위해 벽 한쪽으로 이동하게 한다. 드렉스의 몸짓이 자아낸 웃음은 공포를 삶의 즐거움과 새로운 탄생의 계기로 바꾼다. 카니발에서 명랑하고 가볍고 발랄하고 기괴한 웃음은 자유와 해방의 원리다. 카니발의 캐릭터는 엄숙함, 권력, 위계질서, 강제, 압박하는 것들의 권위를 끌어내려 웃음거리로 만든다. 웃음은 공포와 관련하여 기존의 관계를 재규정한다. 웃음은 공포를 탈관하고 새롭게 만들어 즐거움으로 전이하는 행위에서 나온다(사진 3의 오른쪽).

(2) 의인관으로 번역하기: 이름, 언어, 손, 아픔, 감정

<사진 4>에서 하이 에블루셔너리의 손과 켈의 손은 객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창이다. 실험대상을 집기 위해 뻗는 손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과 권력 그 자체이며, 그 손이 향하는 대상에게 공포를 키운다. 그러나 켈의 손은 죽어가는 로켓을 살리는 손이다.



<사진 4. 왼쪽부터 하이 에블루셔너리의 손, 켈의 손, 로켓, 아담>

켈은 서로의 고유한 경계를 허물고 그 안에 유전정보처럼 새겨진 그들의 역사를 나누어 줬어진 반려종<sup>13)</sup>으로 로켓을 인식한다. 켈의 손은

13) 도나 J. 해러웨이, 최유미 역, 『종과 종이 만날 때』, 갈무리, 2022, 27-32면. 최유미 역, 『공-산의 사유』, 도서출판 b, 2020, 31-34면

로켓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랴도 할 수 있다.

로켓이 실험을 당한 후 다른 실험동물 친구들이 있는 우리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향해 ‘아과’(사진 4의 로켓)라고 말하자 라일라(동료 친구)가 형겅에 침을 묻혀 상처 부위를 문지르며 괜찮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로켓을 공격하던 아담이라는 인물(악당으로 나옴)이 네블라에게 공격을 당하고 쓰러지면서 ‘아과’(사진 4의 아담)라고 말한다. 네블라와 멘티스는 로켓이 어렸을 때 실험동물이 되어 고통을 받던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고 고통스러워한다. 비인간-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감정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장면은 인간/비인간-동물의 경계를 허물고 생명과 감각이라는 층위에서 동일시된다.

“하이 에블루셔너리님이 우리를 신세계로 옮겨주면, 우리는 이름이 필요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89Q12가 진짜 이름은 아니니까. 그래서 난 내 이름을 라일라로 정했어.”

“내 이름은 티프스가 좋겠어. 모두가 이빨이 있긴 하지만, 내 건 더 두드러져 보여.”

“나는 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플로어로 할게.”

“언젠가는 하늘을 날 멋진 기계를 만들 거야. 나랑 내 친구들을 태우고 함께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늘을 날 거야. 14)



<사진 5. 실험대상 동물들이 이름을 짓는 장면 >

인용한 영화 대사와 <사진 5>는 실험동물들이 이름 짓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이 에블루셔너리에게는 유전체 실험대상 라쿤을 숫자 89Q13으로 호명한다. 그러나 라쿤인 로켓을 비롯하여 라일라, 티프스,

14) 영화 <가오겔 3>에서 실험동물 89Q12, 89A95, 89L06, 89P13이 이름을 짓는 장면의 대사.

생태적 공존을 향한 ‘번역’-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을 중심으로 211

플로어, 가모라, 멘티스, 트랙스, 등등 모두 저마다의 이름을 짓고 서로 이름을 호명한다. 이름을 가진 비인간-동물은 더 이상 숫자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의 존재가 된다.



<사진 6. 그루트의 ‘아이엠 그루트’라는 반복되는 말과 마지막 말>

우주 수호자인 가디언즈들은 동일하게 영어를 사용한다. 외계인, 지구인, 동물이 모두 영어로 이야기를 한다. 그루트가 구사하는 문장은 단 하나, ‘아이엠 그루트’다. 상황마다 동료에게 그의 생각을 표현하더라도 오직 ‘아이엠 그루트’다. 그루트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가모라의 경우 왜 ‘아이엠 그루트’만 말하냐고 하는 반면 다른 가디언즈들은 ‘공격을 하자’, ‘잘했냐’, ‘숨졌을 거야’ 등의 의미로 각각 ‘아이엠 그루트’를 이해한다. 그루트의 마지막 대사는 ‘다들 사랑해’다. 관객들에게 ‘아이 엠 그루트’라는 말이 ‘다들 사랑해’라는 말로 들렸다는 것은 그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와 친밀해졌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 (3) 생물학적 진화론을 번역하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인간이든 고등동물이든, 그보다 더 하위의 동물이든 상관없이 생명이라는 ‘존재의 일의성’ 안에서 동등하게 모두 구출된다. 물리학적 기계론에서 동물은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기계는 인간이 마음대로 다루어도 상관없다. 그들의 생명성은 사라지고, 실험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생명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유전체 조작 실험의 경우 분자 수준에서 생명을 이해하게 되면 그 대상은 물리화학의 전기적 작용 때문에 작동하는 기계일 뿐이어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이 말은 물리법칙에 의해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예측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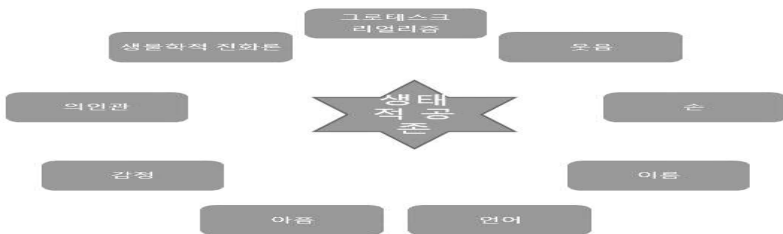
있으며 제어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둔다.

한편, 생물학적 진화론에서는 비인간-동물을 비롯하여 하등한 생명체들에게 모두 생명의 연속성 안에서 존재의 동등한 입장과 태도를 보인다. 개체 하나가 바로 고유하고 특별한 종이다. 대체불가능하고 환원 불가능한 절대 타자성을 인정한다. 우주 생명의 진화 이야기 아래에서 본 인간의 역사에는 138억 년의 우주의 시작과 38억 년이라는 유기체 역사의 과거가 현재에 ‘내향적으로 펼쳐짐’<sup>15)</sup>의 상태에 있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 일부라는 사실과 자연환경과 함께 그때그때 능동과 수동의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진화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을 감안 한다면 지능이 있는 존재가 더 우월하고 그렇지 못한 존재는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들은 존재의 양식 안에서 존재의 되어감을 실현하고 있는 것뿐이다. <가오깬 3>은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생물의 진화적 관점과 우주적 물질관과 유기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를 통해 ‘생태적 공존’의 의미로 확장된다.

### 4.3. 등록하기: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조정할 것인가?

이 단계에서는 연결망으로 포섭하려는 행위자에게 적당한 역할을 부여하고 연결망의 안정화를 시도하는 단계로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웃음’-‘손’-‘언어’-‘이름’-‘아픔’-‘감정’-‘의인관’-‘생물학적 진화론’ 등의 행위자를 ‘생태적 공존’을 실현하는 연결망에 자리 잡게 했다.

<표1> 생태적 공존의 ANT에 행위자를 위치시키기



15) 김주환, 『내면소통』, 인플루엔셜, 2023, 297-308면.

(1) 생태적 공존에서 그로테스크 리얼리즘과 웃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풍자와 익살, 해학, 기괴한 몸짓과 웃음으로 광장을 행진한다. 웃음은 개체와 세계, 우주를 연결하는 거대한 호흡이며 존재론적 평등함 속에서 타자와 나를 하나로 묶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한다. 또한, 이 웃음은 완벽한 생명체를 만들어 그들 위에 군림하고 살겠다는 과학 지상주의자와 프랑켄슈타인 들을 대변하는 하이 에블루셔너리를 비웃는 것이기도 하다. 하이 에블루셔너리와 대결하는 장면은 카니발적인 것으로 기존의 체제와 권위를 해체하고 전복시켜서 당연시하던 질서에 균열을 내고 약자들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생성한다. 카니발은 말하자면 ‘해방된 삶’ ‘거꾸로 된 삶’이다. 거꾸로 된 세상이야말로 극적으로 대립하는 것들의 공존이라 할 수 있다. 긍정하기 위해 부정하는 카니발은 존중하기 위해 조롱한다. 그런가 하면 올라오기 위해 내려가면서 결국 계급, 재산, 가문, 연령이라는 경계로 분리되어 있던 모든 대상은 평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미하일 바흐친이 소란스럽고 무질서한 카니발에서 상생과 공존의 원리를 발견하였다면, <가오갤 3>의 라쿤과 그의 동료들은 카니발 형식의 영화 안에서 불완전한 자들을 향해 역동적인 뒤집기를 보이고 생태적 상생과 공존의 유토피아를 실현한다.

(2) 생태적 공존에서 의인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손, 이름, 감정, 아픔, 언어 등의 의인관을 동원하여 비인간-동물을 인간과 동일선상에 둔다. 의인관적 장치는 인간과 동일한 층위는 아닐 수 있으나 그들도 감정과 마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어떤 존재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대상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또는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태도가 가능해진다. 비인간-동물의 마음에 관한 한 과학적 증거가 아닌 생명의 윤리는 우리의 마음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유일한 마음을 기준 삼을 수밖에 없다. 대니얼 데닛<sup>16)</sup>은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레고리 베이트슨<sup>17)</sup>은 동물에게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타심도 있다고 말한다. 조지프 르두<sup>18)</sup>

16) 대니얼 데닛, 이희재 역, 『마음의 진화』, 사이언스 북스, 2006, 60면

17) 그레고리 베이트슨, 박대식역, 『마음의 생태학』, 책세상, 2006, 565면.

는 마음이 없는 비인간-동물에게 마음을 부여하는 것이 잘못일지도 모르지만, 윤리의 길은 마음이 있으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확대해석하는 쪽을 택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비인간의 목소리가 되어주어야 하는 이들이 인간이며 그들을 동등한 존재자의 위상에서 생각해야 하는 이들도 인간이기에 인간에게 호소하기 위한 의인화가 생태적 공존의 연결망에 필요하다.

(3) 생태적 공존의 맥락에서 생물학적 진화론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고유한 인지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선조들이나 현재의 지구상에 함께 살아가는 다른 동물들보다 더 우수하거나 낫다른 특권을 가졌다는 건 아니다. 그저 다른 동물과 다른 방식으로 환경과 공진화한 것뿐이다. 생명공학 기술시대에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은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의 역동적 관계성을 인식하게 한다. 인간의 기술과학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함께 잘 공존하기 위한 생태적 공존기술이어야 할 것이다.

#### 4.4. 동맹군 동원하기

번역의 3단계에서 행위자들의 역할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행위자의 연결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면, 이제 <가오깬 3>은 ‘생태적 공존’의 ANT가 결성된 셈이다. ‘생태적 공존’은 <가오깬 3>에 나타난 기술과학과 비인간-동물에 관한 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한다. ‘생태적 공존 ANT’에서 다른 동맹자들이 흩어지더라도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를 위해 ‘생태적 공존’이 대표로 목소리를 내는 강력한 힘을 얻는다.

---

18) 조지프 루드, 박선진 역,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 바다출판사, 2021, 28-45면

<표 2> 번역 4단계로 생태적 공존을 대표자로 구성

번역의 4단계
1. 문제제기- 기술과학과 실험동물에 대한 문제제기-->생태적 공존 제안
2.관심끌기-그로테스크리얼리즘,웃음,손,이름,언어,아픔,감정,생물학적 진화론, 의인관
3.등록하기-‘생태적 공존’을 향한 번역으로 연결망 구축
4.동맹군 동원하기- 생태적 공존이 가오겔 3의 대표성을 획득

<가오겔 3>은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태적 공존 메시지로 번역되는 단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생태적 공존이 대표성을 뺏으므로 다른 행위자가 은폐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를 기술과학의 발전에 대입하여 ‘기술과학 발전’이 ‘인류의 복지와 번영’으로 번역되었다고 해보자. 이때 과학기술 발전은 곧 인류의 복지와 번영으로 대체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비인간-동물의 고통이나 희생, 기업과 인간의 욕망 등 다른 행위자는 은폐된다. 동맹군 동원하기는 어떤 행위자가 더 큰 힘을 얻게 되고 다른 행위자는 어떻게 은폐되는지를 역설적으로 시사한다.

또 동원하기는 은폐되었던 동맹군들이 어떤 경우에 다시 회집되는가라는 질문을 생성하여 번역의 성격을 시사한다. 즉 기술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복지와 번영으로 환원되는 것이 합당한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때 연결된 행위자들의 역할을 다시 숙고함으로써 견고하게 구축된 연결망이 해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의한다.

## 5. 결론

본고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 나타난 기술과학 시대에 인간의 욕망과 실험대상인 비인간-동물의 고통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태적 공존’을 제안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 브뤼노 라투르의 핵심적 이론 개념인 ANT와 번역을 사용하였고 행위자 개념을 소개하였다. ‘생태적 공존’을 필수통과지점으로 삼고 영화 <가오겔 3>의 내용을 미하일 바흐찐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웃음’, ‘손’, ‘이름’, ‘아픔’, ‘감정’, ‘의인관’, ‘생물학적 진화론’으로 번역함으로써 ‘생태적 공존’을 향한 ANT를 구축하였다.

ANT와 번역은 ‘어떻게?’와 ‘왜?’라는 질문에 집중함으로써 문제와 ‘연결된’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행위자들의 은폐 과정이 드러난다. 본고에서는 기술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안겨주는 판타스마고리아에는 어떤 행위자를 은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측면에서 번역의 단계 중 ‘동맹군 동원하기’를 조명하였다.

이 시도는 ANT의 핵심 개념인 ‘번역’을 문학분석에 적용하여 학제간 융합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문학분석에서 제외되기 쉬운 자연과학의 내용을 행위자로 연결해 분석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한 것은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예컨대 인지 인문학 분석방법을 통해 기술과학과 ‘생명윤리’ 문제라는 사회적 관점에서 영화 <가오깬 3>을 재조명하였다. 이러한 재조명은 인류세 담론에서 문학이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를 궁구해보려는 것이며, 비인간-동물과 ‘반려종 되기’를 실천해보자는 해러웨이 식의 ‘선언’이다. 그럼에도 문학(영화)분석에 과학적 분석과 사회학 이론을 도입한 인지 인문학 접근은 문학의 예술성과 미학적 완성도를 논하는 부분이 미약하고, 하나의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다소 기계적 분석이 이루어진 부분이 한계로 나타난다. 이 점을 보완하여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문학 장르에도 ANT 기반 학제간 융합분석을 적용하는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 ‘Translation’ Toward Ecological Coexistence Focusing on the Movie ‘Guardians of the Galaxy 3’

Baek, Woojin(Inha University)

The movie ‘Guardians of the Galaxy 3’ leads to a post-human reasoning abou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science that utilizes non-human animals as tools and means. This research aims to construct an ‘ecological coexistence actor network’ by translating such content presented in the movie into ‘grotesque realism’, ‘anthropomorphism’, ‘biological evolution’, and other elements as actors. Bruno Latour's concept of ‘translation’ involves bending and coaxing various actors to form alliances, empowering them to appear as authorities, and constructing a single truth and fact. Movie analysis based on Actor–Network Theory (ANT) holds academic significance in presenting a form of cognitive humanities. In other words, it provides an interdisciplinary analytical model that enables multi-layered contemplation of the issue of the instrumentalization of non-human animals, which is emerging in the era of technology and science. Moreover, it is useful for proposing a vision for ecological coexistence by advocating for the existential equality between non-human animals and humans.

**Key words** : Translation, ANT, actors, ecological coexistence, non-human animals, technology and science,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cognitive humanities

## [참고문헌]

### ■ 단행본

- 김세균, 『다윈과 함께』, 사이언스 북스, 2015.
- 김주환, 『내면소통』, 인플루엔셜, 2023.
- 김환석, 『생명 정치의 사회과학』, 알렘, 2014.
- 그레고리 베이트슨, 박대식 역, 『마음의 생태학』, 책세상, 2006.
- 닉 레인, 김정은 역, 『생명의 도약』, 글항아리, 2011.
- 도나 J. 헤러웨이, 최유미 역, 『종과 종이 만날 때』, 갈무리, 2022.
- \_\_\_\_\_, 최유미 역, 『공-산의 사유』, 도서출판 b, 2020.
- 대니얼 데닛, 이희재 역, 『마음의 진화』, 사이언스 북스, 2006.
- 린 마굴리스, 이한음 역, 『공생자 행성』, 사이언스 북스, 2007.
- 미하일 바흐친, 이덕형·최건영 역,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 문화』, 아카넷, 2001.
- 브뤼노 라투르, 홍성욱 역, 『인간·사물·동맹-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 사이언스』, 이음, 2010.
- \_\_\_\_\_, 장하원·홍성욱 역, 『판도라의 희망』, 휴머니스트, 2018.
- 조지프 루트, 박선진 역,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 바다출판사, 2021.
- 필립 클레이튼·앤드류 슈위츠, 이동우 역, 『미래는 생태 문명』, 산현재, 2023.
- 최종덕, 『생명철학』, 생각하는 힘, 2014.
- 최진석,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 정치학 - 미하일 바흐친과 생성의 사유』, 그린비, 2017.

### ■ 논문 및 기타 자료

- 한국 동물보호 연합, 이학범, 「2021년 실험동물 488만 마리 사용…역대 최대」, 2024년 3월 2일, <https://kaap.or.kr/>.
- 꾸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 3 쿠키정보 2개 정보 밝힌 제임스건 감독/각본자내한인 인터뷰」, 2024년 3월 1 일, <https://blog.naver.com/pooh0512/223089316992>.
- 위드인 뉴스, 김영식, 「제임스 건, “팬들에게 바치는 영화”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vol 3」, 2024년 2월 23일, <http://withinnews.co.kr/news/view.html?section=169&category=173&no=30381>.

생태적 공존을 향한 ‘번역’-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을 중심으로 219

한겨레, 광노필, 2024년 2월 21일, 「머스크“뇌에 칩 이식한 환자, 생각만으로 마우스 조작”」, <https://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1129170.html> .

중앙일보, 임성빈, 2024년 3월 2일, 「“美 FDA, 머스크의 뉴럴링크 동물 실험서 문제 발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2414#home>.

위키트리, 심수현, 2024년 2월 20일, 「마블 영화중 유일한 기록...“이동진 평론가 ‘가오 겔3’ 평점 극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51005>.